식물의 생명력을 표현하는 장신구 연구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금속공예학과
장지영

2015

순서

머리글

연구배경
연구목적

몸글

식물
식물의 형태와 구조
식물의 성장 - 반복과 움돋, 순환
선그림

참고작가
마리안 호스킹 Madrian Hosking
줄리에 블리필드 Julie Blyfield
앤디 골드워시 Andy Goldworrhy

맺음글

머리글

연구배경

식물과 자연세상은 늘 나의 관심대상이었다. 그들은 어떻게 피어나고 진화하며 번식하는가, 그들이 가진 생명력의 묘한 이끌림은 나를 흥미로운 시점에서 바라보게 하였다. 그들의 작은 세상을 들여다 보면 온갖 뒤질서 속에 질서가 자리잡고 그 길이 한번에 무너지기도 하면서 반복된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식물은 마치 자신이 가야할 길을 알고 있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하며 물질세계를 이루고 있다. 우리가 식물이나 꽃에 매료되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시각적으로 마주보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형태들과 아름답다고 느끼는 빛깔과 대칭, 식물의 생명력에서 느껴지는 힘 때문일 것이다.

연구목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 식물의 생명력과 성장과정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조형언어로 풀어 갈 계획이다.바람이나 자연현상 혹은 인간에 의한 이동이 아니면 스스로 옮겨질 수 없는 것이 식물이다. 이러한 점이 식물의 진화를 이끌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온갖 생물종들과 얽히고설켜 인간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식물의 공진화와 생명력을 몸에 착용하는 꾸미개로 표현하여 착용자에 의해 또 다른 생명력의 소생과 변화를 기대하는 표현을 하고자 한다.

몸글

식물

지구상의 생물계를 동물, 식물, 균류로 대별하여 이들 중 세포벽이 있고 엽록소가 있어 독립영양으로 광합성을 하는 생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식물이라고 할 때는 세포막의 바깥쪽에 세포벽이 있고, 엽록소가 있어 광합성을 하므로 독립영양생활을 하며, 이동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상아 식별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식물 [plant, 植物] (두산백과)

식물의 형태

동물과 마찬가지로 식물도 여러 가지 고유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들은 세포라는 구조 및 기능적인 기본 단위가 모여서 이루어지는데, 세포 하나가 독립된 개체를 유지하는 단세포식물이, 수많은 세포가 모여서 기능적으로 결합된 다세포식물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식물의 형태 (두산백과)

식물과 인간의 관계

인류는 일찍부터 의식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식물을 이용해 왔다. 그리하여 약초(藥草)를 발견하고 병을 고치는 데 이용했으며, 술과 차 등의 기호식품을 개발하였다. 원시인류는 자연계에서 식물을 이용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점차 인간이 필요로 하는 식물을 직접 재배하고 이룩시 그 수확량을 올릴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하였다. 이 역사는 스위스의 식물학자 A.P.드 캉돌이 쓴 《재배식물》(1883)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약용식물은 중국에서 BC 5000년경에 이미 이용되었고, 유럽에서는 16세기에 곳곳에 약초원(藥草園)이 생겼다.

[네이버 지식백과] 식물과 인간의 관계 (두산백과)

문화 생태학(스튜어트) [환경 가능론 + 환경 결정론]

생태학이란 "인간의 필요에 따라 환경을 도구로 개발하면 나중에 그 피해가 다시 인간에게 돌아온다."라는 의미로 "인간과 자연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조화와 균형을 중시한다."는 이론으로 상호간의 보완 관계를 존중함으로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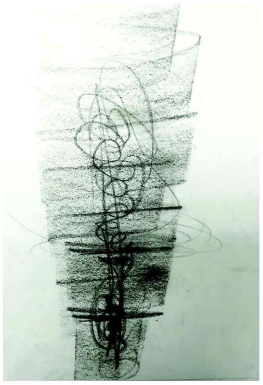
생태학적 입장은 인간이 지나치게 자연을 훼손했을 때 생기는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며 과학적 지식을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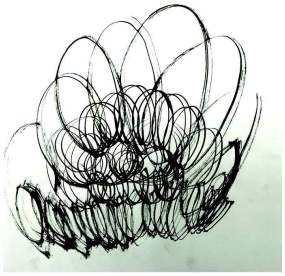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결국 인간에게 그 피해가 나타난다."는 것으로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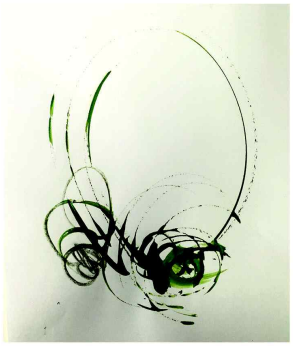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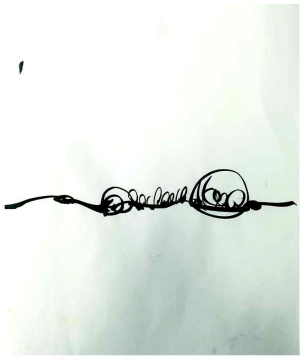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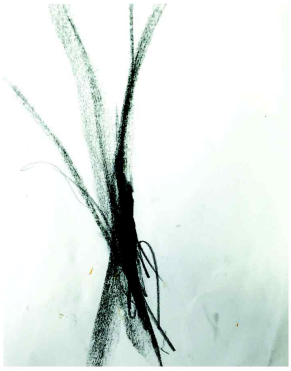
[네이버 지식백과] 인간과 자연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청서출판)

식물의 성장 - 반복과 율동, 순환

식물의 성장과 번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세포의 반복적인 분열과 그 과정속에서 보여지는 율동, 생성과 소멸이라는 순환의 열쇠말들을 떠올렸다. 열쇠말들이 주는 추상적인 느낌을 즉흥적으로 손그림으로 표현하였다.





참고작가

줄리에 블리필드 Julie Blyfield

호주 금속공예가 줄리에 블리필드는 식물을 채집하고 관찰하여 금속판에 정교하게 표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녀의 최근 작업은 식물형태를 가지며 조각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채집을 통해 얻은 식물 표본과 꽃 디자인, 또는 전통적 자수 문양에서 영감을 얻어 작업한다.
식물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질감과 반복적 무늬, 요소과 결을 표현하며 칠보 기법으로 빛깔를 불어넣는다.
그녀에게 채이싱 기법은 식물 표본의 질감과 표면 패턴의 질감을 나타내는 데에 있어 자연스러운 왜곡이 생기도록 하며 비대칭적이고 유기적인 형태로 식물을 표현하는 데 유리한 작용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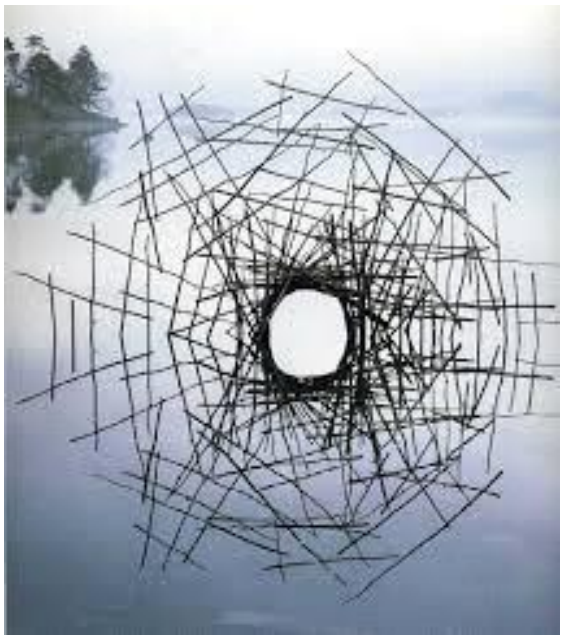
Acacia Impressa, 2006, brooches, sterling silver, oxidised sterling silver, wax finish, 45 x 75 x 20 mm

마리안 호스킹 Marian Hosking

호주출신작가 마리안 호스킹은 식물을 비롯한 자연물을 모티브로 장신구와 그릇을 제작하고 있다. 그녀 작업의 특징 중 하나는 은을 사용하며 은 고유의 색을 살리고 대체로 무채색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주물기법으로 자연의 형태를 나타내고 정교한 귀금속기술로 빛의 움직임을 섬세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작업들은 색이 강조되지 않기 때문에 요소 하나하나의 특징보다는 전체적으로 자연의 한 장면에 대한 암시를 담백하고 차분하게 표현한다.

앤디 골드워시 Andy Goldworthy

영국의 조각가, 사진작가, 대지미술가로 스코틀랜드에서 활동중이다.
자연의 요소들을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의 요소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다.



맺음말

위가 식물을 처음 봤을 때 매료되는 건은 아마도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빛깔과 낯설게도 하지만 익숙한 편안함을 느끼는 마주침의 모양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식물의 성장과정의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위 안에도 내재되어 있는 반복과 율동,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내가 가진 조형언어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인간과 자연은 거대한 상호이해의 거미줄 속에 같이 살고 있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서로에게 객체가 될 수도 있고 주체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위는 식물을 새롭게 바라보며 그 것이 가진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욕망하는 식물 , 마이크 폴란, 이경식 옮김 2007.6.25. 황소자리

식물의 번식력/생명력을 표현한 금속공예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금속공예학과,Herner Bayless, 2006

Marian Hosking Jewellery , Claudia Terstappen, Hir Wise, 2007

Julie Blyfield , Stephanie Radok, Dick Richards, Julie Blyfield, 2010

네이버 국어사전

두산백과